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1>보도자료</h1> <p>2021. 11. 18.(목)</p>
인천지방 검찰청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인천대학교 법학부	인천 본부세관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인권보호관 이계한 032-860-4337	법학연구소 이소영 032-860-8649	홍보팀 신선혜 032-835-9492	총괄기획팀 범주미 032-452-3409	서무팀장 김기배 032-890-6405	

<b>제목</b>	<h2>제1회 국제형사 실무연구회 개최</h2>
-----------	----------------------------

- 2021. 11. 16.(화) 인천지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천대학교 법학부, 인천본부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를 통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제1회 국제형사 실무연구회**를 개최하였음
-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 거래 및 출입국 외국인이 증가하고, **국제범죄 또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하고 있어 **관계 기관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형사 문제들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인 **인천지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 위치하여 국제형사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천대학교 법학부, 인천본부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도 지속적인 교류와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여 국제형사 실무연구회를 창설하게 되었음
- 제1회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여 보이스 피싱 범죄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관계 기관과 학계의 협력과 연구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였음
- 국제형사 실무연구회는 **향후 3개월** 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종 국제형사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며, 각종 국제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I

## 국제형사 실무연구회 설립 경위

### ▣ 국제범죄는 지속적으로 조직화·지능화·광역화 하는 추세

- 국제화 시대에 국제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 (2019년 기준 전체인구의 4.9%)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인구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체류외국인	2,049,441	5,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 이에 따라 각종 국제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이스포싱 범죄 등에 외국인 관여, 폭증하는 마약 반입 등 심각한 문제 발생

### ▣ 인천은 '대한민국 하늘 및 해양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고 국제형사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소재

-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통로인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과 16개의 국제기구가 소재한 곳으로서, 국제거래와 국제범죄 등을 관할하는 전문 기관·대학들이 소재해 있음
- 인천지검은 2018. 4.경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외사와 마약·조직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출입국 외국인청도 국제범죄 수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각종 국제문제에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 관련 기관들의 공동연구와 협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하고 있는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연구하고 유관기관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

## II

### 제1회 국제형사 실무연구회 개요

- 일시 : 2021. 11. 16.(화) 14:00~16:00
  - 장소 : 정부 화상회의 플랫폼 '온나라(vc.on-nara.go.kr)' 화상회의
  - 참석자(각 기관과 학교의 관계자 60명 및 기타 참석 희망 인원)
  - 회의 내용
    - 주제 : 외국인 관여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 발표자 : 인천지검 외사부장 장준호, 형사4부 검사 김나리
    - 토론자 : 인하대학교 교수 김원오·원혜욱·최준혁, 인천대학교 교수 이충훈, 인천세관 조사국장 이동현, 인천세관 총괄기획팀 범주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전동균, 인천지검 검사 김한민 등
- ※ 상세한 토의 내용은 첨부 자료와 같음

## III

### 향후 계획

#### ▣ 기관 간 밀접한 협력과 연구로 각종 국제형사 이슈들에 적극 대응

- 종전까지 대학들은 이론적 연구를, 기관들은 소관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나, 국제형사 실무연구회를 통해 각종 국제형사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실무적인 연구·토론을 수행하고, 기관 간 소통을 계속 강화할 예정
- 이를 통해 국제범죄 대응역량을 극대화하여, 증가하는 각종 국제형사 문제들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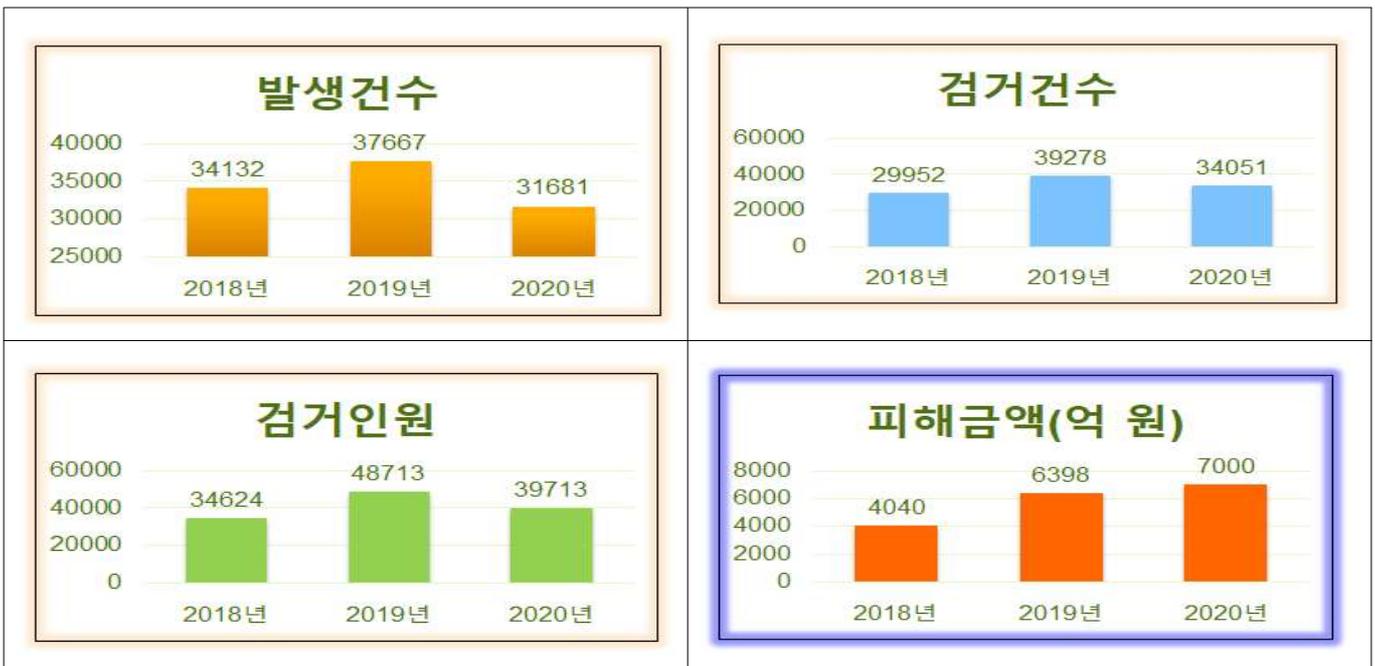
#### ▣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연속성 확보

- 3개월(1, 4, 7, 10월)마다 인천세관, 인하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대, 인천지검이 순차로 연구회를 주관하여 발제·토론함으로써 지속성을 가지고 국제범죄 관련 권위 있는 연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 

## I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 및 검거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피해금액은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임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극심하나, 총책과 콜센터는 통상 외국에 존재하고 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단속을 해도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스미싱, 카톡피싱 등으로 그 범행수법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

-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임
-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총책, 국내 인출책, 콜센터 등으로 보통 구성되는데 총책 및 콜센터는 통상 국외에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검거가 줄었음에도 피해금액이 '20년 기준 연 7,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범죄임



- '20년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가짜 김○○ 검사 등)이 취업 준비생으로 하여금 42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고, 해당 이익을 국외 송금한 환전책의 사기방조는 막상 무죄가 선고되어 대응미비가 지적되기도 하였음
- 한편, 보이스피싱은 도착한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는 '스미싱', 액정파손·휴대폰고장 등이라고 속이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카톡피싱' 등으로 다양하게 범죄방식이 진화하고 있음

#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범죄 >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

## 2.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 1. 보이스피싱 범죄란 무엇인가

### ! 보이스피싱 범죄란?

-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하는 신종범죄

### ! 현실의 보이스피싱 범죄란?

- 통상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4. 사회적으로 계속 심각한 피해를 발생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가짜 김OO 검사, 가짜 이OO 수사관)들이 취업 준비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42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한 사안(20년 1월) 언론보도 등



## 5.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스미싱)

**스미싱(Smishing)** | **피싱(Pharming)** | **피싱(Phishing)** | **모의근해킹**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의문본 제공', '환전권 소인할', '모바일 충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주소 유희(허위) →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속박을 당할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예방법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  
2. 타적인 앱이 일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Web발신]**  
[CI용운] 불...  
배송불가(도료명불일치)주소지확인>>  
<https://goo.gl/eKib1S>

**[Web발신]**  
[C내환용운]주문하신물품 미배달도  
보정발달치,수정하세요 <https://ban.gl/z6Uz>

2022년 4월 15일 목요일  
011-9077-9155  
[Web발신]  
[간금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https://bit.ly/3a...ei>

## 5.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카톡피싱)

액정파손, 휴대폰 고장 등 다양하게 속이면서 카카오톡으로 사기 범행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 상대방: 선택이 뭐예요?  
- 사기범: 핸드폰 액정 나가서 재정에 수리받으시고 급한대로 컴퓨터에서 기록 올렸어  
- 상대방: 대박?  
- 사기범: 대박!  
- 상대방: 보이스톡 필요  
- 사기범: 부대응  
- 상대방: 뭐?  
- 사기범: 지금 입금할수있으면 부탁했것어  
- 상대방: 문맹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 사기범: TTTT  
- 상대방: 그래서 얼마한테 부탁했거지  
- 사기범: 추가받은 친구추가해줘  
- 상대방: 나 지금 문화상품권 팔려있어...  
- 사기범: 추가받은 친구추가해줘  
- 상대방: 추가받은 친구추가해줘  
- 사기범: 추가받은 친구추가해줘

# II 보이스피싱 관련 외국인 관여의 문제점

- 국제화 시대에 맞춰 출입국 외국인 수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인구 중 약 5%가 외국인인 상황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범죄도 계속 문제되고 있음
- 최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체류 또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이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현상으로 2021년 적발된 대포폰 중 외국인 명의자의 비율이 59%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 연 1,788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5%(25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입출국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상태임(통계는 2019년 기준,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입국 및 체류 외국인 수가 급감하였으나,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증가와 함께 '16년까지는 증가하는 외국인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 외국인범죄 자체는 증가추세가 아니고 연 36,400건 내에서 감소 및 안정된 추세임
- 그러나 최근의 문제는 외국인범죄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들 또는 그 명의가 범죄에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으로 계속 언론에서도 문제되고 있음
- 관광객 등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은 종전부터 문제되어 '15. 7.경에는 모든 신규계좌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일일 이체 한도액에 제한을 두는 등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불편도 상당한 상황임
- 그러나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하고 그들 명의로 계좌, 휴대폰 등을 개설하거나, 공사 현장 등에서 외국인 명의를 취득해서 계좌, 휴대폰 등을 개설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대포통장,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속 악용되고 있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년 4월부터 2개월 간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수단을 단속해 3만 1,617개를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적발된 대포폰 중 외국인 명의자 비율이 59%에 이르는 등 외국인 관여 문제는 심각함

### 1. 국제화 시대에 맞춰 다수의 외국인이 출입국

2019년 기준 연 1,788만 명의 외국인이 입국(2020년은 코로나 영향 감소)

연도	외국인 입국 인원
2014	1,548,000
2015	1,580,000
2016	1,650,000
2017	1,700,000
2018	1,750,000
2019	1,788,000
2020	1,200,000

### 3. 다만 외국인 관여 범죄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범죄 자체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는 점

### 3. 외국인 관여 범죄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

2021년 적발된 대포폰 중 외국인 명의자 비율 59%

**관중, 오개표권 대포폰 50만 건 적발**

경찰청이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17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대포폰 5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적발된 대포폰 40만 건을 포함하여 총 90만 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대포폰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10만 건에 달하는 대포폰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 3. 외국인 관여 범죄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

외국인초청으로 대포통장을 대거 마련하여 범죄에 활용

**대포통장 모집방법 진화중...외국인 초청 통장 개설까지 저행**

경찰청이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17개 경찰청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5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적발된 대포통장 40만 건을 포함하여 총 90만 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10만 건에 달하는 대포통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 III 토론에서 제안된 각종 아이디어

- 국가는 외국인 입국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외국인의 출입국 제한을 강화하여** 함부로 계좌·휴대폰·차 등 명의를 대여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방안, **환치기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해외반출 관여사범을** 엄단하는 방안,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도록 제도개선 된 것과 같이 **명의자 없는 상태의 계좌, 휴대폰 개설 시 경고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실현 가능성, 실제 시행 시 문제점 및 각 기관들이 공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할 필요성 등이 논의됨

#### **[제안1]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한 경우 출입국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 국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 입국의 금지 사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
  -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대법원 2017두38874호)이고, 국가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서울행정 2009두합10253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4조) 상 행정기관은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화 하여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외국인을 통지하면 법무부(출입국)에서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연구 필요
- 범죄 외국인의 입출국이 금지 또는 제한(사증면제 대상도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외국인에 의한 대포통장, 대포폰이 쉽게 만들어지는 현상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제안2]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사범들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 등**

- 출입국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종전 외국인범죄자는 강제퇴거함으로써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후 강제퇴거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형을 적극 구형하고, 집행유예 등에는 적극 항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인출책을 적극 단속하는 것에 더하여 그 범죄수익의 해외(총책으로의) 반출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음



# IV

## 주제 관련 토론요지

<p><b>교수 토론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 관여 외국인을 엄벌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기 또는 사기방조를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을 <b>형사처벌</b> 하는 것은 <b>상당한 어려움이</b> 예상됨</li> </ul>
<p><b>토의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 관여 외국인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li> <li>• 형사처벌 대상은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정도로 범죄에 관여된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 불이익 등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대응도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유관기관 공조 협의가 중요</li> </ul>
<p><b>교수 토론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외국인 유학생 등을 보면 사실상 피해자적 입장에서 범죄 사실을 잘 모르면서 관여하게 된 경우가 많은바, <b>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상당</b></li> </ul>
<p><b>토의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li> <li>• 다만 <b>현재 내국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된 경우에는 통상 사안보다 엄벌이</b>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외국인들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 가능</b></li> </ul>
<p><b>인천 세관 토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치기 사범에는 엄정 대응 중이지만, 금융실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은 <b>수사권이 없이</b> 세관 단독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li> <li>• <b>외국환거래법 2~300억 원 사범을 단속해도 법원, 검찰에서 단순 벌금으로 사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b> 수사의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함</li> </ul>
<p><b>토의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청과 세관이 서로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환치기 사범의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해외반출을 확인하는 등 <b>지속적인 협업 필요</b></li> <li>•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반출을 막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수익을 반출하는 속칭 '<b>환치기</b>' 범죄에 <b>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에 공감</b></li> </ul>
<p><b>출입국 외국인청 토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대 범죄로 출입국 시 제한을 가하고 있음</li> <li>• 출입국관리에 재량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명백한 근거 자료 없이 <b>출입국 제한을</b>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li> </ul>
<p><b>토의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출국정지·금지 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외국인의 잘못이 확인될 때 그 죄질에 따라 단계별로 입국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출입국 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관련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b>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 검토 필요</b></li> </ul>